우키요에(浮世絵)풍경화 - 속(俗)의 기호행동론적 해석

- 히로시게 『명소에도백경』 -

김 애 경*
(e-mail: ssls1223@hanmail.net)

목 차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3. 그림의 기호행동론
4. 기호행동론의 우키요에 적용
5. 기호행동론 적용 도판 분석
6. 결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絵)[1]는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의 엄격한 신분제도의 '차이' 하에 위치한 쵸닝층(町人層)이 현실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자아를 중시한 과정에서 잉태시킨 상업 미디어적 성격의 회화이다.

최근 우키요에를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재현하여 다양하게 읽어보려는 방법론적 시도가 다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2].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1) 19세기를 풍미했던 일본 서민문화의 대표적 조류로 유럽에서는 <일본풍>, 즉 <자포니즘>을 크게 유행시켰으며, 한국에서도 2004년 이래 매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키요에는 다색 목판화(錦絵、니시키에)를 지칭하지만 흑백 목판화나 붓으로 그린 그림들도 해당된다. 다색 판화로서의 우키요에는 18C 중엽 이후에 등장하여 주로 가부키 배우, 스모의 역사, 유곽의 여인들을 독립된 화제로서 그렸으나 19세기 초에 풍속화와 유사한 우키요에 풍경화(名所絵)가 등장하여 유행하였다.

2) 久保友香, 趙捷, 宇佐美貴徳, 広田光一(2008),「3DCGによる浮世絵構図法」, 情報処理学会, 第7回情報

www.kci.go.kr

시각 이미지 연구의 방법론 중 기호학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론은 자칫 예술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비판되고 있으나 기존의 경험적이고 직관적 상식에만 의존하던 우키요에 분석과는 대별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 차용이 많은 우키요에의 특징상 분석에 있어서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결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호 이미지를 통한 의미내용 분석은 의미 생성 경로를 예견할 수 있게 하고 분석적 논리와 더불어 미학적인 면의 음미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우키요에의 다양한 장르 중 우키요에 풍경화를 사회적·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시켜, 명소 풍경을 배경으로 사회 풍속 및 인간묘사 등을 주제로 삼고 있는 우키요에 풍경화가 유통된 이유와 그 기능에 중점을 두고 구성 모티브 상호간의 의미관계를 그림의 <기호행동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해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우타카와 히로시게(歌川広重)[3]의『명소에도백경(名所江戸百景)』[4]을 <기호행동론>이라는 새로운 틀을 적용하여 작품에 묘사된 속(俗)적인 측면(인간 묘사)의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목표이다.

<기호행동론>이란 기호-인지-행동의 관계를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키요에 풍경화에서 종래는 단순한 '스미다(隅田)강 주변의 묘사' 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징 기호들을 '요시와라(吉原)[5]에 왕래한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해독하여 그 의미 관계를 파악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호화 된 행동론으로 『명소에도백경』이 제한된 화폭 안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 행위를 위하여 '상징성을 공유하는 기호를 다용하였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그 상징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의 개념이 필요하고, 그 기호는 '당시의 사회 문맥에 상응하는 특정한 행동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표상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 기초한다.

위의 가설은 이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시각 이미지의 상징체계는 구어적 상징체계에 비하여 유연한 가변적 장치로서 사회 과학적인 접근이 쉽지

科学技術フォーラム. 小沢一雅(1993)「浮世絵合成システムPICSの構成」,『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Vol20, No.6. 趙捷(2009), 「浮世絵構図の分析と再構成」東京大学大学院 新領域科学研究科 修士論文.

3) (1797~1858), 우타카와(歌川)파에 입문하여 1831년 무렵 『동도명소(東都名所)』 연작물 발표 후 풍경 판화 주제를 제작하였다. 1833년~34년에 걸쳐 제작한『동해도53역참(東海道五十三)』을 통해 명성을 얻으며 이후 전국 각지의 명소를 소재로 삼았다. 그가 그린 에도의 명소 그림은 1,500점이라는 방대한 수에 이른다(国際浮世絵学会, 2008『浮世絵大辞典』株式会社 東京堂出版, p.477).

4) 총 119점의 연작물로 히로시게 만년(1856~1858)의 미완성 대작(大作)이다. 오늘날 동경 지역의 풍경을 소재로 하고 있다. 막부시대 말기 우키요에의 주 수요층인 서민층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경이 변형 가공된 서정적인 천변묘사가 특징적이다.

5) 일본의 전통적 공창제(公娼制)에 의한 유곽거리 중 에도(동경)에 있었던 것으로 일대 환락가 사교장으로 번창하면서 에도문화(江戸文化)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www.kci.go.kr

않고, 시각적인 기호의 발주자와 수용자 사이에 일치된 의미 작용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대상인 우키요에 풍경화는 구조적으로 발주자와 수용자 사이에 일치한 의미 작용이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업 예술이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전제였다.

우키요에(浮世絵)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각 장르에 포함된 메시지에 대한 연구 특히 시각적인 메시지와 이미지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는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림의 기호행동론은 우키요에 작품에 내포된 다의적 의미 작용의 논리적인 분석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키요에 풍경화를 기호의 텍스트로 보고 해석하는 방법론은 에도를 보다 철저히 표면적인 일상 세계 뿐 아니라 심상의 세계(상징 세계)를 포함하여 해독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6장 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2장에서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기호학의 전반적인 흐름과 대표적인 기호학자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론을 살펴본 뒤 3장에서 퍼스의 삼분법적 이론을 토대로 <기호행동론>의 파생 과정을 설명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생성된 분석틀이 우키요에 풍경화 작품 분석에 타당한지에 관한 근거를 제시한 후 구체적인 이미지 사례들을 적용, 분석하여 6장을 결론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호와 기호학

카시러(E.Cassirer)는 인간을 “상징을 만드는 동물(animal symbolicum)”로 규정하며, 인간은 언어, 신화, 종교, 예술, 학문, 역사 등과 같은 인간 활동들의 체계를 상징 형식으로 사용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제반 행동에 기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호(記号)란 의미작용[6]을 하기위하여 쓰이는 개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히로시게의 『명소에도백경』 작품 속에서 기호의 예를 들자면 s39(도판일람 번호)의 흩날리는 벚꽃 잎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함축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s62의 빨간 깃발과 같이 어느 장소나 집단을 알리는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두견새처럼 님에 대한 그

6)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 내는 행위를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라 하고, 의미 작용을 통해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하여 기호작용(semiosis)이라 한다. 기호학이 의미 작용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적 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www.kci.go.kr

리움을 담아내는 상징이기도 한다. s86의 흩어진 말똥과 s98의 쏘아올린 불꽃놀이의 선에서는 불쾌하게 풍기는 냄새와 요란한 소리를 각각 시사하며 또 s114의 멧돼지를 상징하는 글자나 군고구마 선전 문구처럼 아이디어, 사상, 지시, 원형, 개념 등의 무형의 정보도 제공한다.

그러므로 기호는 언어이기도 하고 비언어적 측면인 시각, 촉각, 청각, 후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호학은 어떠한 학문인가?

기호학은 기호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영역을 가진다.

1) 기호자체: 기호의 다양성, 의미를 전달하는 상이한 방식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호와의 관계 방식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2) 기호가 조직화되어 있는 약호나 체계: 기호학은 하나의 사회 혹은 문화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혹은 욕구 전달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되어 온 약호의 다양한 방식을 다룬다.

3) 약호와 기호를 둘러 싼 문화: 역으로 문화의 존재와 형태가 이 같은 약호나 기호의 사용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기호학은 일차적으로 기호인 텍스트에 주안점을 두며 기호의 '수신자'라는 용어보다 '해석자' 또는 '해독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해석자(해독자)'라는 용어는 보다 많은 능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독에 의해 생성된 해석체는 해독자의 문화적 경험에 의하여 다양하게 표출된다. 해독자는 그들의 경험, 관습, 태도 및 감정을 텍스트에 끌어들임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2-2. 소쉬르와 기호학

기호학의 이론적 발판은 소쉬르(1857-1913, Ferdinand de Saussure)류와 퍼스(1839~1914, Charles Sanders Peirce)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소쉬르의 기호학 이론은 구조주의적 인식 방법으로 언어학(음운론)에서 출발하여 그는 <기호=기표+기의>로 보았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는 그 기호 체계가 말의 외적 형식(소리나 모양)인 기표(記表, signifier)와 말의 의미인 기의(記意, signified)의 연결 관계 즉 의미작용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소쉬르가 말하는 의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예를 들어 A가 자동차를 한 대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자동차는 하나의 기표로서 같은 계열체인 리무진에서부터 스포츠카, 지프차, 경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종과 비교되면서 특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외시적 기호(1차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 또 그 계열체에서 A가 선택한 자동차의 크기와 성능, 디자인등의 요소는 다시 기표로 작용하여 그 자동차를 구매한 A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즉 리무진은 고급스타일의 비싼 차라는 사실 외에도 소유자의 사회적 수준이나 지위, 더 나아가 사회적인 위계까지도 나타내는 공시적 기호(2차 의미)를 형성한다. 이때 2차 의미는 인간의 의미작용의 과정이 개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소위르의 기호학은 항상 상보적인 양면이 존재하는 언어의 모순적 성격을 통합적으로 지닌다. 그러므로 소쉬르의 기호모형은 이분법과 변증법적 합성이라는 대립되는 두 가지 조작을 포함하고 있다(예: 모양-배경, 기호-대상체, 기표-기의)[7] .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는 후에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사각형으로 이어진다.

2-3. 퍼스의 기호학

소쉬르의 언어적 출발과 달리 퍼스는 이미지의 영역을 '도상적인 범주' 내에서 정의한 최초의 인물로서 그의 정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것이다[8].

그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사고를 유도하였다. 즉 모든 발견은 구체적인 행동과 연계되어 지고 행동은 인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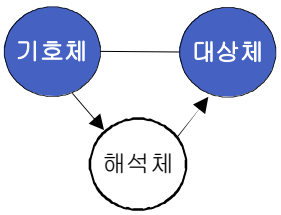
퍼스는 내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외부 사실에 대한 사전 지식에서 발전하는 가설적 추론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므로, 무전제적, 비매개적, 순간적인 직접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순수한 직관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지식은 논리적으로 앞서는 선행지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9].

퍼스의 인지는 지식과 의미의 생산과정이며, 이것은 연역(deduction), 귀납(induction), 그리고 유추(abduction)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기호의 약호(cord)와 규칙의 형성과 해석에 유추의 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기호(sign)를 대하게 되면 항상 유추가 발생한

7) 박영원2003)『광고 디자인 기호학』 서울 범우사, p40.
8) 베르나르 투쌩(1987) 윤학로역,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청하, p.69.
9) 박영원(2003), 전게서, p46.

www.kci.go.kr

다는 것이다[10]. 따라서 기호의 해석에 개입하는 유추의 과정은 인지 이론(Cognitive Theory)과 결합하여 중요한 기호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11].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퍼스의 기호학은 기호들의 구성 3요소를 기호체(표상체), 대상체, 해석체(해석소)로 구분한다. 이 삼원적 관계는 여러 가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호의 삼원적 관계

위의 삼원적 관계는 기호가 의미작용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며 제4의 요소인 해석자가 이 삼원적 관계를 통하여 기호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호의 삼원적 관계를 구성하는 3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호의 구성요소	의미와 기능
기호체(표상체)	기호 그 자체로써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
대상체	기호체가 지시하는 대상물 기호(표상체)가 나타내는 그 무엇
해석체(해석소)	기호 구조의 내부에서 기호체를 대상체로 이끄는 해석 작용 주어진 기호로부터 촉발되는 의미 효과

세 번째인 해석체는 퍼스가 중점을 두어 강조한 요소로 퍼스는 해석을 그 자체로 새로운 기호(해석체)로 보았으며, 무수한 해석체는 궁극적으로 원래의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퍼스는 제4의 요소인 해석자에 의한 다양한 해석을 중시한 것이다.

해석자와 해석소는 퍼스의 기호학에서도 흔히 혼동되어 사용 되는데 해석소는 기호 자체로서 생성되는 의미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호의 해석자이고 그에 대한 기호와 지시 대상의 대응 작용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12].

해석자는 기호를 해석하여 지시 대상과 결합 시킨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퍼스는 기호를 다양한 해석자가 '인지하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를 3분[13]하였다.

---

10) D. G. Mick(1986), *Consumer Research and Semiotics : Exploring the Morphology of signs, Symbols, Signific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3. p.199

11) 박영원, 전게서, p.30.

12) 하인쯔 크로웰 지음, 최길렬역(1993) 『현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도서 출판 국제. p35.

13) 첫째 비교에 의한 3항 관계: 질 기호, 존재 기호, 법칙 기호. 둘째 운용의 3항 관계: 도상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 셋째 사고의 3항 관계: 평어적 기호, 술어적 기호, 논증적 기호.

www.kci.go.kr

그 중 운용의 3항 관계는 퍼스의 기호학을 거론 할 때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으로 ①도상 기호(icon) ②지표 기호(index) ③상징 기호(symbol)이다.

도상기호 (icon)	대상체와 유사한 이미지나 소리	예: 후지산과 닮은 후지총, 초상화
지표기호 (index)	대상과 실존적 관계에 있는 기호	예: 다이아반지는 부의 지표,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바람이 분다는 지표
상징기호 (symbol)	대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약속에 의해 자의로 만들어진 관념이나 기호	예: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 로고는 학교나 기업을 상징

즉 도상은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한 기호이며 지표는 인접성과 인과 관계, 상징은 규칙 또는 자의적인 관습에 의한 기호라고 할 수 있다.

퍼스는 사물을 표현하는데 완전한 기호는 대부분 도상적, 지표적, 상징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이미지가 보여주는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의 혼합은 그 이미지를 용이하게 가정하는 환영적인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특징과 이미지를 읽어내는 수용자의 내적 자아를 강조 한다고 할 수 있다[14]. 퍼스의 기호학은 모리스에 의하여 재정립의 기회를 맞게 되고[15] 움베르트 에코로 이어지게 된다.

2-4. 소쉬르와 퍼스 기호학의 합일점: 자의성

퍼스의 관점을 소쉬르의 기호에 대한 관점과 비교한다면 소쉬르가 이분법을 기반으로 그의 언어학을 전개하여 기호를 동기화 된 기호와 자의적 기호로 나누었는데 퍼스의 도상기호와 지표기호는 동기화 된 기호로 상징 기호는 자의적인 기호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적 차이는 자의성에 관한 문제이다. 퍼스가 말한 도상 기호나 지표기호는 그 기호와 대상간의 관계가 자의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쉬르가 말한 기호의 영역에 들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쉬르는 '상대적 자의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퍼스의 도상 기호와 지표기호의 개념을 포용한다고 볼 수 있고, 퍼스는 '상징기호'라는 개념으로 소쉬르의 기호의 '자의성'이라는 중요개념을 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16].

14) 노만 브라이슨 외 지음, 김융희, 양은희역(1995.) 『기호학과 시각예술』 서울: 시각과 언어, p55.
15) 퍼스의 행동주의적 기호이론을 정립하는데 공헌한 모리스는 '기호는 기호가 해석자에게 야기 시키는 행동에의 성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되고 유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6) 박영원2003). 광고 디자인기호학 서울 범우사, p48.

www.kci.go.kr

3. 그림의 기호행동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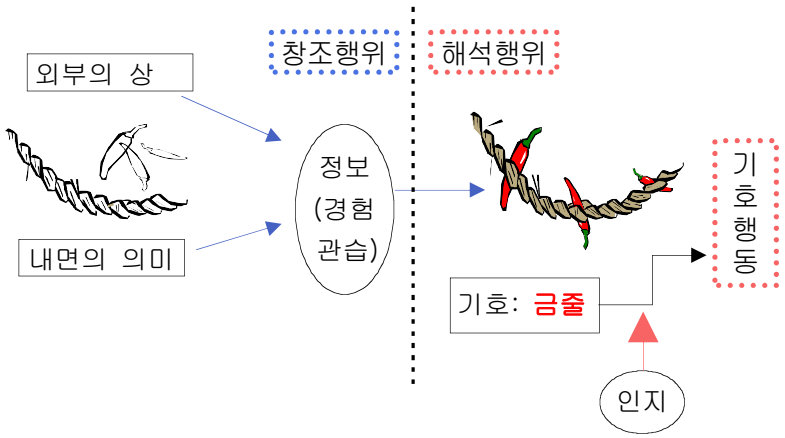
3-1. 기호-인지-행동

퍼스의 기호학은 기호들의 구성 3요소를 대상체, 기호체(표상체), 해석체로 구분하여 해석체 즉 제4의 요소인 해석자에 의한 다양한 해석을 중시하였다.
소쉬르는 기호의 주된 기능은 기표와 기의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미작용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각각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는 있으나 기호학에 있어서 기호와 관련된 해석 행위가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위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그림 이미지를 기호의 연속으로 보았을 때 기호 주변에 응집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창조 행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 행위> 즉 <기호행동>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기호행동론은 우키요에 풍경화 <해석 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퍼스의 기호학 개념에 기반 한 <기호-인지-행동>이라는 3항의 관계 위에 성립한다.
<기호-인지-행동>이라는 3항의 관계란 <외부에 있는 상>과 <내면에 있는 의식>이 <정보>를 매개로 <특정 기호>가 생성되어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의 관계이다. 이때 매개가 되는 정보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습하게 된 경험이나 이미 생성된 사회적 관습이다[17].

다음은 <기호-인지-행동>의 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17) 에코(Umberto Eco 1932~)는 '기호는 이미 생성된 사회적 관습의 토대위에서 어떤 것을 대신하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것' 이라고 정의하여 기호의 관습적(conventional)인 특성을 강조 하였다. 비언어적 기호학의 계보는 퍼스-모리스-시벅-에코로 이어져 오랜 기간을 거쳐 기호가 사회적 관습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www.kci.go.kr

도식에서 고추와 새끼줄은 각각 고유의 내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부의 상이다. 두 사물이 정보를 매개로 결합하여 '금줄'이라는 특정한 기호가 생성되어 의미작용(기호행동)이 일어났다.

'금줄'이라는 기호의 해독에 있어서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예방 의학적 효과와 새 가족의 출산을 알리는 이중의 목적을 지닌 과학적인 표시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상체인 금줄을 매달아 대중에게 보이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 작용한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이미 생성된 사회적 관습의 토대위에서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으며 잡귀의 침범을 방어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신호'라고 해석 할 것이다.

이때 각각의 해석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보를 학습에 의하여 또는 관습적으로 더 알고 있었으리라 예측 해 볼 수 있다.

금줄은 태어난 아기의 성별을 알리는 신호로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호는 새끼줄에 고추, 숯, 짚 등을 달았다. 딸이 태어났다는 기호는 숯, 솔잎, 종이 등을 달아 신호하였다. 부정 탈까 봐 사람의 접근을 금지 했다.

이러한 정보 하에 이 금줄을 본 사람들은 아들인지 딸인지 굳이 물을 필요가 없이 기호의 해석이 가능하여 '방문을 삼간다'라는 기호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호를 사용한 사람도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 전달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즉 양자 간 기호의 목적을 달성한 일치된 기호행동(의미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3-2. 기호와 심상(心象)의 관계

본고의 기호행동론은 우키요에 풍경화의 <해석 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퍼스의 기호학 개념에 기반 한 <기호-인지-행동>이라는 3항의 관계 위에 성립한다. 이것은 그림 매체에 표상된 기호 정보를 매개로하여 해석자의 '행동'과 '심상'을 읽는데 목적을 둔다. 그렇다면 기호가 어떻게 '심상(마음)'을 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기호행동(記号行動, symbolic behavior)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참고해 보는 것도 개념 전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기호행동: 기호(記号)를 사용하는 유기체의 목적추구 행동.
>
> 예컨대 자신이 직접 물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유기체는 언어라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을 매개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유기체는 유전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호체계와,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한 기호체계를 사용하여 기호행동을 한다. 기호행동은 학습과정·기억과정·인지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사람의 기호행동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8]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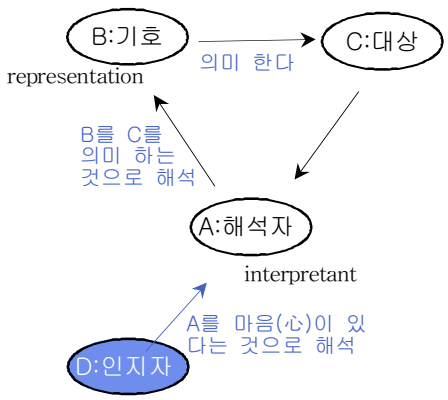
위의 내용은 언어 기호를 상정한 정의이나 기호는 비언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언어의 기호행동의 정의도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를 요약하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호를 사용 하는 존재가 유기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기호행동론의 '심상'의 표현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의 기호행동에 '마음(心)'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별기준을 일상 경험이나 관습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기호는 인간의 심상표현으로 간주 된다[19].

본고가 기호를 통하여 심상을 읽는 것이 목표라면 이 암묵리의 판별기준을 명시화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유기체가 기호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심상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기호를 사용하는 모든 유기체는 모두 마음이 있는 것이다.

아래 도식은 '유기체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판별기준은 유기체가 기호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에서 판별가능하다'라는 생명기호론[20]의 가설을 퍼스의 기호학 3항을 응용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생존의 목적을 가진 유기체 A가 B와 C사이의 관계를 학습 했을 때, B는 C의 기호가 되고 유기체 A는 B의 해석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때 4요소인 인지자는 기호적 관계를 학습 할 수 있는 A를 마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도식은 A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호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때의 기호행동은 조건 반사에 가까운 것으로 조건반사는 마음의 있다고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즉 기호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유기체가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18) 두산백과사전(doopedia).

19) 기호(sign)는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별도로 존재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인데 이는 한 참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대신하는 요소이며, 수용되면 다른 참여자의 마음속의 그 무엇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Wibur Schramm, William E.Poter, *Messages and Media,* 최윤희역(1993) 『인간 커뮤니케이션』 나남, p.79.)

20) Jesper Hoffmeyer(2005) 松野 孝一郎, 高原 美規역,『생명 기호론-우주의 의미와 표상』, 青土社.

www.kci.go.kr

문제의 핵심은 기호의 자의성에 관한 합일점에 있다. 즉 기호와 대상체와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적이나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호의 가치도 다양하게 변화해 간다는 의미이다. 즉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아무런 자연적 혹은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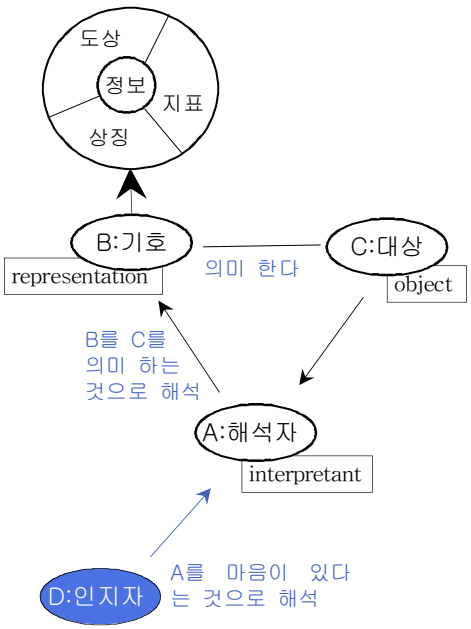
기호를 사용하는 유기체 A의 목적추구 행동(=기호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세계의 구조도 시시 각각변화 한다고 볼 때, 훈련에 의한 기호 행동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의 구조에서는 훈련받은 내용대로 기호행동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호행동을 통하여 '심상'을 판단하려면 기호가 단일한 구조가 아닌 다음의 요건 중 적어도 2가지 이상 만족 시켜야한다.

- 이분법적인 구조화된 환경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
- 의미가 없는 부분(기호)과 의미 있는 부분으로 음양의 가치를 구비한다.
-기호가 합목적적 욕구에 상응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기호를 구성하는 텍스트에 도상적, 지표적, 상징적 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 요점을 다음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A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B와 C사이의 자의적인 관계를 학습(경험)했을 때 B는 C의 기호가 되고 A는 B의 해석자가 된다. 이때 인지자 D는 해석자에게 마음(心)이 있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4. 기호행동론의 우키요에(浮世絵) 적용

4-1. 우키요에의 기호

우키요에 작품을 기호의 텍스트로 간주하였을 때 텍스트에 표상된 모티브(예술 작품에서,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 제재나 생각)는 언어처럼 다양한 의미작용을 동반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우키요에는 표출 된 작품의 모티브를 통해 작품에 특징이 부여되어 다양한 장르로 명명-미인화(주로 유녀상), 야쿠샤에(役者絵, 배우상), 역사화, 춘화, 우키요에 풍경화등-되었다.

우키요에 풍경화의 의미 작용을 기호학적 이론으로 접근할 경우, 그 자체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도상, 지표, 상징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들의 중첩에 의해 소비자와 작품 간의 의미작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작자가 부여한 우키요에의 영향력은 기호학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정신적 개념을 통해 완성된다. 우키요에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소비자의 자의인 것이다.

기호행동론은 기호가 사용된 에도에서 시각 이미지의 발주자와 수요자 사이에 비교적 일치된 의미작용이 쉽게 일어났었다는 기본 전제하에 자의적으로 생성된 기호와 행동의 관계를 우키요에 풍경화에 적용시킨 방법론이다.

사실상 시각적인 기호의 발주자와 수용자 사이에 일치된 의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시각 이미지의 상징체계는 구어적 상징체계에 비하여 유연한 가변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시각 이미지와 달리 우키요에 풍경화는 특수한 구조를 지닌 판화 매체였다.

4-2. 우키요에의 구조

도표1은 우키요에의 구조를 도식화 한 것으로 '제작자와 수요자 사이에 비교적 일치된 의미작용이 쉽게 일어난다'는 가설의 기본 전제가 유의미함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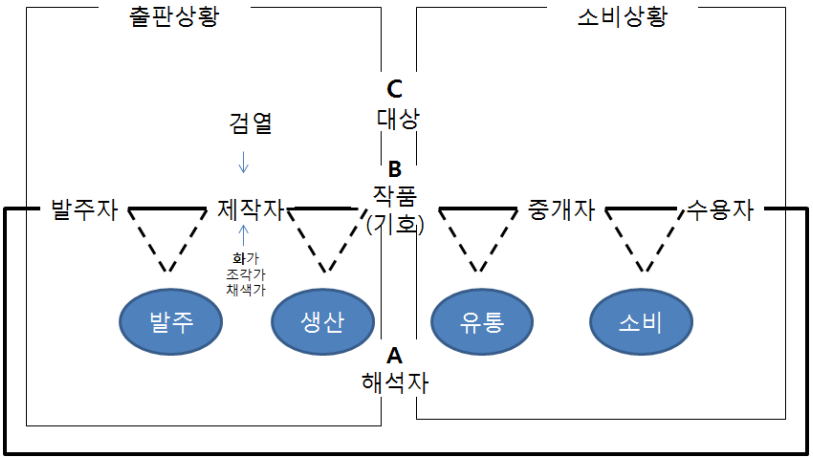
도식에서 우키요에는 7개 요소로 구성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즉 발주자-제작자-중개자-수용자로 배열된 수평적 4요소는 발주,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당시의 제도적 요소이다.

제도적 요소 중 제작을 총괄하는 발주자(版元, 한모토, 출판사)는 출판 계획과 더불어 적절한 대상체(주제)를 선정하여 화가(絵師, 에시)에게 밑그림을 발주한다. 화가는 지정된 화면 크기(『명소에도백경』의 경우: 약 26㎝×39㎝)에 검열 과정상 요구되는 규칙에 근거해 발주 받은 대상을 표상하여 검열인을 받은 후, 그것은 조각사(摺り), 호리

www.kci.go.kr

시), 채색사(摺師, 스리시)의 공정을 거쳐 대량 생산되어 중개자를 매개로 유통망(絵草紙屋, 에소우시야)에 올려져 수용자에게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반면 대상-작품(기호)-해석자로 배열된 3개의 수직적 구조는 그림의 내용적 요소이다. 우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중심 주제가 되는 모든 사물의 대상체이다. 작품은 이러한 대상을 기호로 나타낸 표상체이며,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표상과 대상이 합쳐서 생성된 작품의 의미를 정보(경험이나 관습)를 매개로 이해 가능한 사람이다. 곧 수용자로 이어질 소비층이다.



이상과 같은 제작 과정에 대한 파악은 기호행동론이란 방법론을 우키요에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작품은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성되어 소비되므로 발주자와 수용자 간의 비교적 일치된 의미작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흥행된 작품의 경우는 의미작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작품자체가 기호 텍스트로서 의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을 해독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몫으로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 학습된 경험이나 관습을 매개로 작품을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사람이 작품을 매개로 그들의 행동과 심상을 읽어 내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이 유의점은 기호행동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분석 할 때도 동일한 사항이다.

첫 번째는 근세 우키요에 화가와 현대의 화가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우키요에를 분류하거나 감정을 할 때 화가의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화가는 독자적 창작자가 아니라 조각가, 판화가와 더불어 공동 제작과정의 필수 불가결한 일 기능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공동제작을 구성하는 7개의 요소 각각에 대하여 그 존재적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작품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도표의 왼쪽 사각형은 출판 상황을 나타내고, 오른쪽 사각형은 소비상황을 나타낸 2개의 사각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이해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작품이 출판되는 상황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낙차가 있다는 것은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시간적인 낙차란 우키요에 풍경화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려고 할 때, 주로 작품에 찍혀있는 검열인을 단서로 출판시기를 유추하게 되는데 이때 검열과 출판시점 간의 시간적 낙차를 계산하여야 한다. 공간적인 낙차란 그림의 기호행동에 대한 공간 인지의 낙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요시와라는 현재 사라진 공간이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문헌 정보를 기초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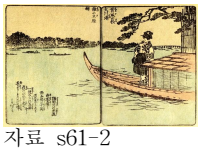
5. 기호행동론 적용 도판 분석

【 도판1(s61) 관련 문헌 자료】

수로가 특히 발달했던 에도에는 유곽(遊郭)인 요시와라(吉原)로 통하는 수로가 4개 있었다. 가장 이용하기 수월했던 길은 야나기바시(柳橋)에서 시작된다. 이 다리는 간다(神田)강이 스미다(隅田)강과 합류하는 지역에 걸려있다. 이곳을 시작으로 이어진 수로는 이마토(今戸)까지 이어지고 이마토로 부터 요시와라까지는 육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거리는 매우 짧았다.

자료 s61-1

유곽(遊郭) 내왕 시 손쉬운 교통수단은 '요시와라 배'라고도 불렸던 저아선(猪牙船)으로 폭이 좁고 뱃머리가 뾰족하여 속도가 빨랐다(자료 s61-1). 이외에 유흥에 사용되었던 배로는 야네부네(屋根船, 지붕이 덮힌 배)가 있었다(자료 s61-2). 지붕 배의 경우 무사(武士) 이외는 배에 미닫이를 장치하는 것이 금지 조항이었으므로 서민은 발(簾)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것도 덴포우 개혁(天保改革)시 풍기상의 문제로 인하여 풍우 시 이외에 발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었다.


자료 s61-2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1(s61)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좌측 전면의 늘어진 소나무는 막부의 아사쿠사(浅草) 미곡 창고 4번과 5번 중간 부두 제방에 있는 소나무의 형상을 표상한 것이다. 이 소나무는 요시와라로 가는 배의 길목을 지표 하였다. 수미(首尾)는 소나무의 명칭으로 요시하라(吉原) 내왕 유객이 하룻밤의 수미를 빈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좌측 원경으로 저아선이 보인다. 이 작은 배는 주로 저녁에 유곽으로 유객을 분주하게 운반하였다.

www.kci.go.kr

반쪽만 묘사된 지붕 배의 발(簾)사이로 유녀의 실루엣이 상징되었고, 뱃머리에는 두 켤레의 게다(下駄)가 놓여있다. 상상하던 유녀의 모습은 s61-2에서 볼 수 있다.

1842년의 덴포 개혁(天保改革)에서 지붕 배의 발(簾)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였는데 이 그림은 그 규칙의 느슨함을 상징적으로 표상한다.

그림의 기호들은 '스미다강 주변의 밤 풍경'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기호행동론의 틀에 적용하면 '요시하라에 다닌다'는 2차적 의미를 공시하고 있다.

기호	인지	행동
밤하늘, 아사쿠사, 수미란 이름의 소나무, 저아선, 지붕 배, 발, 유녀의 실루엣	스미다 강변 아사쿠사 하안(河岸)의 밤 풍경	요시와라 내왕

【도판2(s37) 관련 문헌정보】

자료 s37-1
江戸名所図会(橋場)

에도 아사쿠사(浅草)의 동북, 이마도(今戸)나 하시바(橋場)에서는 이마도야키(今戸焼)를 굽는 가마가 즐비하였다. 초벌구이계의 그릇을 비롯하여 이마토 인형등은 소위 에도(江戸)의 상징 토기로서 스미다 강변의 풍물시(風物詩)였다(자료 s37-1).

스미다강에는 미야코도리(都鳥)와 관련된 이세물어(伊勢物語)가 전승되고 있다(자료 s37-2).

「名にしおはば　いざこと問ん都鳥　我思ふひとはありやなしやと」21)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2(s37)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s37-2
스미다강과 미야코 도리

강위의 미야코 도리가 이세물어(伊勢物語)와 의미작용 하여 이곳이 스미다강 연안임을 지표 한다. 전면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마토의 둥근 도자기 가마는 유곽의 위치를 지표 한다.

방향으로 보아 연기 뒤로는 수신사(水神社)의 도리이(鳥居)가 있을 것이고 가마를 기준으로 상류에 하시바 선착장이 있을 것이다. 맞은편 노란 지붕군은 무코우지마(向島) 선착장을 지표 한다.

이 텍스트는 요시와라로 향하는 저아선의 길목을 암시하고 있다. 유곽을 목표로 출발한 저아선은 이곳 이마토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하여 산야수로에 들어가 이마토 다리 아래 수로를 빠져나갈 것이다. 반면 이마토의 도자기 작업장을 향하는 인부들은 다리 위 육로를 통과할 것이다. 어스름한 석양을 배경으로 2척의 배도 뱃

21) 헤이안(平安)시대 고금집 가인(歌人)중 在原業平(아리와라노 나리히라)가, 교토(미야코, 都)에서 에도의 습지대의 변경으로 좌천되어 스미다강까지 왔을 때, 미야코 도리(都鳥, 갈매기종)를 본 業平는 새 이름에 가탁하여 미야코(쿄토)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하는 내용.

www.kci.go.kr

머리의 방향이 엇갈려 의미작용을 심화 하고 있다.

다양한 기호의 의미작용이 중층적으로 표상된 이 텍스트는 ‘스미다강 연안 이마토 풍경’ 이다. 그러나 기호행동론의 틀을 적용하면 ‘요시하라에 다니다’라는 2차적 의미가 공시된다.

기호	인지	행동
도자기 가마, 연기, 미야코 도리, 감색 물결, 이세물어(伊勢物語), 저아선, 수신사(水神社), 무코우지마 선착장	스미다강의 이마토 주변 정경	요시와라 내왕

【도판3(s39)관련 문헌정보】

일본의 민속신앙 중 대표적인 신앙의 하나가 이나리(稲荷)신앙[22] 이다. 이나리사(稲荷社)는 대명의 저택에서부터 마을 어귀는 물론이고 유곽 내에도 있었다. 에도 고지도(古地図)에서 요시와라를 보면 곽(郭)의 네 귀퉁이에서 이나리사가 확인된다(자료s39-1)[23].

자료s39-1

특히 에도에서 스미다강 연안의 미메구리 이나리사(三囲稲荷社)는 벚나무가 많았고 신사의 도리이는 우키요에의 소재로 다용되었다(자료s39-2). 도리이가 마주보는 지역은 마쓰치야마(待乳山) 지역(봉긋한 숲)이다. 이 지역은 요시와라로 향하는 저아선들이 북상 도중 안표로 삼은 오카바쇼(岡場所, 사창)이다.

자료s39-2
三囲堤真乳山遠望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3(39s)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좌측 아즈마교(吾妻橋)와 원경의 센소우지(浅草寺)의 오중탑은 지붕배가 스미다강에 떠 있음을 지표 한다. 감색 물결위의 지붕 배는 유녀와의 행락장면을 상징한다.

뱃머리의 방향은 산야 수로(山谷堀)를 지표하고 있는데, 산야수로는 신요시하라(新吉原)에 다니는 배의 수로 (水路)로 이용되었다.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묘사한 이와나미(岩波)판 『히로시게 명소에도백경』의 저자 헨리 스미스의 해설이 재미있다.

> 그는 ‘그림의 유녀가 미메구리 이나리사(三囲稲荷社) 부근으로 벚꽃 놀이 갔다가 이마토교의 다릿목에 있는 요정으로 들어가려는 것일 게다. 그렇지 않

22) 이나리 신앙은 에도시대 특히 에도라는 도시에서 폭발적인 융성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도 전국의 신사(神社)총 약8만사 중 약 3만사가 이나리로 추정된다. 에도에 산재한 이나리 명칭의 유래는 농업신, 토지신, 성신(聖神), 신기(神木), 빙령(憑霊), 여우, 복덕장수(福徳長寿), 양육, 병치료, 화재예방, 음식금기등 다양하다.

23) 에도에는 남녀 구성비의 불균형이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인하여 200개소가 넘는 오카바쇼(岡場所)가 번성하여, 매독등 성병이 맹위를 떨치게 되어, 매독도 이나리의 효험을 기대하는 병이었다. 湯浅徳子(2008) 『稲荷信仰から見える江戸』동경공업대학교 대학원 사회이공연구과, 석사논문.

www.kci.go.kr

으면 해가 지는 것을 기다려 객은 요시와라에 가려는지도 모른다'고 해설하였다[24].

이 그림의 기호인 푸른 강물, 지붕 배, 오중탑, 아사쿠사의 관음, 유녀, 아즈마교(吾妻橋), 흩날리는 벚꽃은 '스미다강의 주변 묘사'를 지표하고 있지만 '요시와라에 간다'는 의미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	인지	행동
푸른 강물, 지붕 배, 오중탑, 아사쿠사의 관음, 유녀, 아즈마바시(吾妻橋), 흩날리는 벚꽃, 미메구리 이나리사	스미다강의 뱃놀이	요시와라 내왕

【 도판4(s105) 관련 문헌정보】

요다카(夜鷹)라는 단어는 야행성 조류를 의미하지만 에도시대 가창(街娼)을 비유한 말이다. 즉 요다카는 밤이 되면 나와서 노천, 혹은 밤에만 빌려주는 가옥에서 매춘을 하던 위법의 창부를 일컫는다. 최하급 창부로 교토(京都)에서는 쯔지기미(辻君), 오사카(大坂)에서는 소우가(惣嫁)로 지칭되었다. 고센류(古川柳), 샤레본(洒落本)에서도 그 기술이 보이고 있다. 『천언필기(天言筆記)』(1845년간)「東の辻君花の名寄(아즈마노 쓰지기미 하나노 나요세)」에는 에도에 99명의 요다카가 선악(善悪), 이름, 연령순으로 품평되어 있다고 하는데「오우마야가시(御厩河岸)」나들목에는 6명이 실려 있고 연령은 18세에서 27세 였다고 한다[25].

유녀가 30세 이상이 되어 성병이나 병에 걸리는 등 문제시 된 경우 키리미세(切見世)[26]에 보내졌다. 이곳에서 유녀의 아게다이(揚代, 유녀의 값)는 상당히 저렴한 것이었으므로 하루에 많은 객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27].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4(105s)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키요에 풍경화에 묘사된 요다카의 파격적인 표상이다. 어스름한 저녁에 배 한척이 들어오고 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돗자리를 들고 서서 배를 건너고 있는 두 인물이 요다카다. 두꺼운 시로누리(白塗り) 화장을 한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현은 암울한 현실을 암시한다. 동행자는 유객꾼(妓夫)으로 보인다. 해안에 버드나무가 상징적으로 유녀를 지표하고 있다.

인물 기호를 매개로 의미작용하고 있는 이 텍스트는 '스미다강 나들목 정경' 이다. 그러나 기호행동론의 틀을 적용하면 '요시와라에 다니다'라는 2차적 의미가 도출된다.

---

24) ヘンリー・スミス(1992), 『広重　名所絵江戸百景』, 岩波書店, p.39

25) 상게서 p.105.

26)에도의 하등 유녀야(遊女屋). 나가야(長屋)에 칸막이를 하여 칸막이 마다.한사람 씩 창녀를 두고 시간을 정하여 영업을 하였다. 동일 개념의 단어로 쓰보네미세(局見世), 뎃포미세(鉄砲見世)가 있다.

27) 기리미세의 아게다이는 약 10분에 50文~100文(에도중기 경 소바(蕎麦) 한 그릇의 값은 약 16文).

www.kci.go.kr

기호	인지	행동
오우마가시, 푸른 강물, 저녁, 배, 빨간 오비, 돗자리, 감색 수건, 시로누리(白塗り, 하얀 얼굴 화장), 요다카, 유객꾼, 버드나무	스미다강 서안 나들목 정경	요시와라 내왕

【도판5(s62) 관련 문헌정보】

駒形堂(고마카타도우)는 아즈마교(吾妻橋)건너편으로 센소우지(浅草寺)에 인접하여 있었다. 고마카타란 이름은 마두관음(馬頭観音)이 안치 되어있는 것에서 유래한다.

「센소우지 관음연기(浅草観音縁起)」에 의하면 이곳은 센소우지의 본존이 현시 된 유서 깊은 장소이다[28].

고마카타도우(駒形堂)는 요시와라의 유녀 2대 다카오(高尾) 다유가 센다이의 3대 번주 다테쓰나무네(伊達綱宗)를 그리워하며 읊었던 구(句)의 소재로 사용되어 유명해졌다. 이후 쿄겐 작가가 이 이야기를 연극화하였다. 다음은 유명했던 석별의 정을 담은 구(句)이다.

「ゆうべは波の上の御帰らせ、いかが候。
御館の御首尾つつがなくおわしまし候や。
御見のまま忘れねばこそ、思い出さず候。かしこ。
君はいま　駒形あたり　ほととぎす。」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5(s62)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곳은 오우마야가시 나들목에서 1키로 북상한 곳이다. 좌측으로 아즈마교(吾妻橋)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요시와라의 육로 길도 멀지 않았다.

그림의 쓸쓸하게 비 내리는 하늘에 다양한 기호가 표상되어 있다. 우선 외로이 날고 있는 두견새 한 마리와 좌측 전경의 고마카타도우(駒形堂)는 결합하여 의미작용을 도출한다. 마치 다카오(高尾) 다유가 읊었던 구(句)를 그림으로 표상 해놓은 듯하다. 에도의 남자라면 모두 알고 있을 법한 상징이다.

하늘의 나비 모양 구름도 유녀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차용되어 두견새와 더불어 센다이 번주를 향한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의미작용으로 상징되었다.

이 텍스트의 의미작용은 다양한 종류의 기호들의 결합에 의해 중층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현대인의 눈에 그림은 일견 '비 내리는 스미다강 서안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2차적인 의미는 '요시와라와 관련'이 공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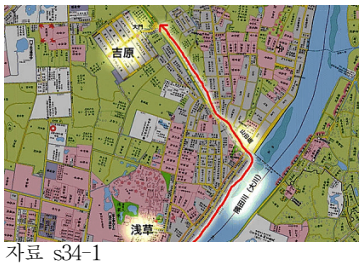
28) 『센소우지 관음연기(浅草観音縁起)』에 의하면 스이코 천황 36년(628년) 宮戸川(미야토가와, 스미다가와의 하류근처)에서 어로 중이던 형제가 투망 속에서 1체의 불상을 발견하고 그 불상을 가지고 상륙한 땅에 세워진 당(堂).

www.kci.go.kr

기호	인지	행동
배, 푸른 강물, 흐린 하늘, 비, 빨간 깃발, 두견새 한 마리, 나비구름 형상, 고마카타도우(駒形堂), 아즈마(吾妻)다리	비 내리는 스미다강 서안 상류	요시와라 내왕

【도판6(s34) 관련 문헌정보】

에도에서 '수로'하면 산야수로(山谷堀)를 떠 올렸을 정도로 산야수로는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수로였다. 자료 s34-1의 화살표가 지표 하듯이 유곽 요시와라로 향하는 배는 이마토를 통과하여 산야수로로 들어간다. 수로 양쪽으로는 선숙(船宿), 요정등과 같은 유흥과 관련된 업종이 번창하여 에돗코(江戸っ子, 에도 토박이)가 이곳에서 한밤을 보내는 것도 유흥의 한 방법이었다. 今戸橋(이마토교)는 산야수로 입구에 걸린 첫 번째 다리로 저아선의 하선(下船) 장소이다. 하선한 유객은 이곳을 기점으로 도보 또는 가마를 타고 요시와라로 향했다.



자료 s34-1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6(34s)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밤하늘의 총총한 별과 대비되어 푸른 강물 위로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 잎이 상징되었다. 건너편 암흑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전경의 인물과 결합하여 의미작용을 도출하고 있다. 쵸칭(提灯, 초롱불)의 글자는 요정을 지표 한다. 에도의 남자라면 바로 요시와라 내왕을 연상했을 표상이다.

건너편에 걸린 다리는 이마토교이다. 교각 주변은 하선하는 유객의 저아선으로 붐빈다. 강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 원경으로 이 장소를 목표로 북상해 오는 저아선들이 보인다. 표제의 마쓰치야마(待乳山)는 그림 중앙에 봉긋하게 표상되었다. 이 봉긋한 형상은 성(聖)과 속(俗)의 상반된 의미작용을 유발하는 추상적 기호이다[29]. 마쓰치야마(待乳山)에 대한 이와나미(岩波)판『広重　名所絵江戸百景』의 해설을 참고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저아선(猪牙船)들이 가는 도중에 안표로 삼은 것은 화면 중앙의 암흑에 부상된 사창이다. 이곳은 마쓰치야마(待乳山)이다. 여기에는 성(性)적인 것이 듬뿍 포함되어 있다. 산상에는 인도 신으로 별명이 歓喜天(간기덴)이라고도 불리는 부부 화합을 상징한 성천(聖天)을 받드는 신사가 있다. 대근(大根)을 심

29) 우키요에 풍경화 속 'mori(森, 社, 杜)'는 <봉긋한 형상 = 신사>라는 추상적 등식을 보여준다. 그림 속 'mori(森, 社, 杜)'는 마치 커다란 고분(무덤)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추상화 되어 있어서 일본인이 아니면 신사와 연관지어 상상하기 어렵다. 김애경(2011),『日語日文学』「우키요에(浮世絵)풍경화 속에 숨겨진 'mori(森, 社, 杜)' 사상」 第52輯.

www.kci.go.kr

벌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더불어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포합(抱合)」하여 있다고 하는 재미있는 상징 지표이다. 대근이 시각상으로도 어감으로도 남성의 심벌이 되기 때문이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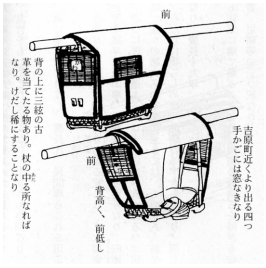
기호들이 집합체인 텍스트는 '스미다강 주변 풍경'을 지표 하지만 '배에서 내리면 곧 요시와라' 라는 2차적 의미를 공시 하고 있다.

기호	인지	행동
밤하늘, 푸른 물결, 기모노 여성, 초롱불, 요정, 벚나무, 저아선, 산야수로, 마쓰치야마, 벚나무 기둥, 별과 흩날리는 벚꽃 잎	스미다강 주변 산야수로 이마토 선착장 원경	요시와라 내왕

【도판7(s100) 관련 문헌정보】

에도에서 日本堤(니혼츠쯔미)는 신요시하라(新吉原)로 이어지는 제방 길을 지표한다. 이 제방은 이마토(今戸) 교각의 선착장으로 부터 500미터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곳이다. 하류의 산야 수로 주변에서는 양쪽 기슭에 제방을 쌓았다고 하여 「二本堤」라 지칭했다고 한다.

요시하라가 이곳으로 이전해 오고 나서는「요시하라 제방」이라고도 불렸던 이곳은 요시와라 내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 번성하였다. 특히 제방 위에는 편립 찻집(編笠茶屋)[31]이 즐비하고 수 백개의 가마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마는 욧츠테 가마(四つ手籠)로 불리는 것으로 수로용 교통수단인 저아선과 동일한 개념의 육로용 교통수단이었다. 에도의 가마는 보통 좌우가 개방되었다. 사방이 가려진 가마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사계급에 한했다. 그러나 욧츠테 가마는 조그만 창만 달린 사방이 막힌 가마로 에도의 서민이 대명이나 장군이 된 기분으로 탈 수 있었던 유일한 가마였다(자료 s100)-1).



자료 s100-1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7(s100)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밤하늘에 떠있는 반달이 상징하는 스미다강의 저아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신 습지대를 관통한 제방 위로 욧츠테 가마가 표상되었다. 그 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어가는 사람, 삿갓을 눌러 쓴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의 인물들이 분주하게 표상되었다.

요시와라로의 행렬을 지표 한다. 이 행렬은 좌측 불야성(유곽) 위를 날고 있는 기러기 행렬과 대비되어 특별한 의미작용을 생성한다. 우측으로 미오쿠리 야나기(見返り柳,

30) ヘンリー・スミス(1992), 『広重　名所絵江戸百景』, 岩波書店, p.34
31) 유곽에 다니는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삿갓 모양의 모자를 빌려 주던 곳.

www.kci.go.kr

수양버들)가 표상되어 있다. 에몬자카(衣紋坂) 위에 위치한 수양버들로서 요시와라 대문 입구를 지표 한다. 우키요에 풍경화에서 수양버들은 이미지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의미작용이나 대상 지시작용이 있는 기호이다. 다양한 기호들의 표현 양태에 기호행동론을 적용하면 '유곽으로 들어간다'는 2차적 의미작용을 공시하고 있다.

기호	인지	행동
반달, 니혼즈츠미(日本堤), 기러기 떼, 요츠테 가마, 얼굴가리개, 편립 찻집, 불야성, 에몬자카, 수양버들	스미다강 주변 니혼즈츠미의 밤 풍경	요시와라 내왕

【도판8(s38) 관련 문헌정보】

유곽(遊郭)이나 유리(遊里)는 유녀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지역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 의해 세워진 에도막부(1603~1868)는 개설 초기 공인된 위락시설인 집창 체제를 급속히 정비하였다[32]. 이 정책은 중세로부터 근세에 걸쳐서 일본 유곽사에 정설화 된 공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중세까지 산창이라 불리며 각지에 산재해 있던 유곽이, 근세가 되면 일정한 지역에 모인 집창으로 불린다고 하는 내용으로 '산창 제도가 집창 제도로 바뀌었다' 라는 공식이 된다[33]. 또는 '근세에 들어 유곽제도에 대한 정비 또는 사창제도의 확립'[34]이라고도 말하여진다.

에도(동경)의 요시와라(吉原)는 교토(京都)의 시마바라(島原), 오사카의 심마치(新町)와 더불어 에도시대 3대 공인 유곽으로 다수의 유녀와 고용인들이 속해 있었다[35]. 이 외에도 나가사키의 마루야마(丸山)등 20여 개소가 더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도시 유흥의 표상으로서 요시와라의 화려해 보이는 정경은 우키요에의 소재로 다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洒落本, 人情本, 黄表紙, 狂歌, 川柳, 歌舞伎, 講談, 落語, 音曲의 빈번한 소재가 되었다. 유곽은 1958년 매춘 방지법의 시행까지 약 360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일본 문화사 형성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어 왔다.

위의 문헌자료의 인지 하에 도판8(s38) 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신 요시와라(新吉原)의 입구이다. 본고의 흐름상으로는 드디어 유곽에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림의 기호는 새벽임을 지표한다. 즉 먼동이 트는 동쪽 하늘, 나무대문 오른쪽 기둥 뒤의 불그스레한 적광, 중앙의 외등이 시간 기호이다. 이 그림은 유곽 입구에서의 이별 장면을 표상하고 있다. 좌측의 벚꽃나무는 요시와라를 상징하는 우에

32) 에도의 庄司甚右衛門이 유곽설치를 간원 한 것이 1612년, 元요시와라에 허가 된 것이 元和4년(1618년), 新요시와라로 이전한 것이 明暦3년(1657년)이다.

33) 渡辺憲司(1994)『江戸遊里盛衰記』, 講談社, p.15.

34) 상게서, p.35.

35) 에도의 번영으로 전국에서 이름난 유곽거리 신요시와라(新吉原) 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창녀가 한 곳에서만 5.000명이나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ジーボルト, P. F. von,1967(斎藤信 訳), 『江戸参府紀行』, 平凡社 (東洋文庫87), p.214~15.

www.kci.go.kr

사쿠라(植桜)[36]이다. 귀가를 서두르는 듯 한 전면의 남자는 얼굴 가리개로 눈에 띄지 않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 빨간 우치카케(打ち掛け, 겉옷)를 걸치고 있는 여성은 당연히 유녀일 것이다. 굽 높은 게다(下駄)는 계급이 높은 유녀를 지표한다.

기호	인지	행동
먼동, 외등, 얼굴 가리개, 유녀, 빨간 우치카케, 굽 높은 게다, 나무대문, 우에 사쿠라	요시와라 대문 입구 이별 정경	요시와라 내왕

에도시대의 기호의 발주자는 에도의 남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발시키는 유형의 이미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에도의 인간 이라면 위와 같은 스미다강 주변의 기호가 담긴 텍스트들을 통해 바로 요시와라 내왕을 연상했을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우키요에 풍경화에 기호행동론을 적용하여 해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우키요에의 상징적 표상을 기호로 보고 해석하는 방법론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각 이미지의 잠재된 의미작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히로시게의 작품 이미지의 표상적 특징이 비교적 사실성에 근거한 상징적인 표현 방법을 다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스미다강과 요시와라에 대한 이미지의 의미 생성경로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에도시대의 우키요에는 이미지를 매개체로 하는 미디어이다. 따라서 그림 속에 담긴 이미지의 연속은 동시대의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에도에 대한 우키요에 풍경화들의 이미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매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에도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에도인의 '일상생활'과 '심상의 세계'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작품 분석 방법으로서 기호학을 기초로 하여 파생한 기호행동론을 그림 의 해석 틀로 제시하였다.

우키요에를 기호의 텍스트로 보고 작품이 대상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호행동론이란 분석 도구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잠재된 이데올로기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또한 다양한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키요에 해석에 있어서 통일된 분석 용어를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호행동론은 상징적인 의미 차용이 많은 우키요에 풍경화의

36) 유곽의 화려한 밤에 딱 맞는 정서를 만드는 장치로서 짧은 만개의 기간 동안 만 유곽 바로 앞길에 심어져 바로 치워졌다.

www.kci.go.kr

특징 상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아 단순하게 '서정적 정취'라는 표면상의 해석에 치우치기 십상인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내면의 의미 생성 경로를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분석적 논리와 더불어 미학적인 면의 음미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가 기호행동론을 적용하여 히로시게의 우키요에 풍경화에 담긴 스미다강의 주변 풍경이 표상 된 매체에 초점을 맞추어 속(俗)이라는 주제를 분석하였지만 다른 화가의 장르나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분석에도 차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노만 브라이슨, 김융희, 양은희 옮김(1995.) 『기호학과 시각예술』, 서울: 시각과 언어, p55.

박영원 (2003)『광고 디자인 기호학』, 서울 범우사, p30, 40, 46, 48.

투쎈 베르나르(1987) 윤학로 역,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청하, p.69.

小沢一雅(1993)「浮世絵合成システムPICS の構成」『人文科学とコンピュータ』Vol20、No.6. 趙捷(2009)、『浮世絵構図の分析と再構成』東京大学大学院 新領域科学研究科 修士論文.

久保友香, 趙捷, 宇佐美貴徳, 広田光一(2008)、3DCGによる浮世絵構図法、情報処理学会、第7回情報科学技術フォーラム

国際浮世絵学会(2008)『浮世絵大辞典』株式会社 東京堂出版、p.477

湯浅徳子(2008) 『稲荷信仰から見える江戸』동경공업대학교 대학원 사회이공연구과, 석사논문.

渡辺憲司(1994)『江戸遊里盛衰記』講談社、p.15. 35

D. G. Mick(1986) Consumer Research and Semiotics : Exploring the Morphology of signs, Symbols, Significance, Joumal of Consumer Research. Vol.13. p.199

Henry D. Smith (1992) 『広重 名所絵江戸百景』 岩波書店, p.34, 39,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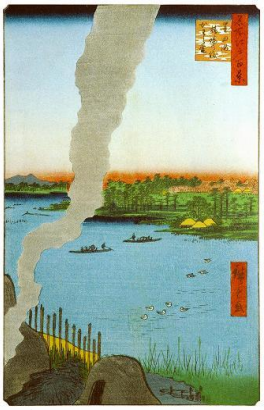
Jesper Hoffmeyer(2005) 松野 孝一郎, 高原 美規역,『생명 기호론-우주의 의미와 표상』, 青土社.

Wibur Schramm, William E.Poter, Messages and Media, 최윤희역(1993)『인간 커뮤니케이션』나남, p.79.

www.kci.go.kr

【도판】

도판1(s61)
浅草川首尾の松御厩河岸



도판2(s37)
墨田河橋場の渡かわら竈

도판3(s39)
吾妻橋金竜山遠望

도판4(s105)
御厩河岸

도판5(s62)
駒形堂吾妻橋

도판6(s34)
真乳山山谷堀夜景

도판7(s100)
よし原日本堤

도판8(s38)
郭中東雲

www.kci.go.kr

要 旨

本稿は広重の『名所江戸百景』シリーズを<記号行動論>という枠組みを適用して作品に描写された＜俗＞的な側面(人間描写)の分析を試みた。

分析の結果、浮世絵作品のイメージを記号で見て、作品が対象体をどのように表現したかを分析するということは、表面的によくあらわれない潜在されたイデオロギーを科学的な方法によって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今まで多様な主観的な分析用語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浮世絵の解釈において、統一された分析用語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た。

このような側面で絵の＜記号行動論＞は象徴的意味の借用が多い広重作品の特徴上、現代人の視線からみると単純に〃叙情的な表象〃と表面向きの解読に終わりやすいテキストを分析することにおいて、その意味生成経路を理解できるようにして分析的論理とともに美学的な面の吟味も可能にすると思う。

キーワード：Utakawa Hiroshige, Ukiyo-e paintings. Ukiyo-e Landscapes, One Hundred Famous Views of Edo, Secular affairs, Symbolic behavior, Ideology

투　　고：2011. 11. 30
1차 심사：2011. 12. 17
2차 심사：2012. 1. 7

www.kci.go.kr